

전동혁의 장편서사시 「박 령감」 연구

이 승 하*

1. 서론
2. 고려인 의용군의 러시아 내전 참전 묘사
3. ‘강제이주’가 금기의 언어가 된 이유
4. 소련의 중앙아시아 개발이 시작됨
5.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고려인의 입장
6. 마무리

〈국문초록〉

전동혁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가던 1910년, 러시아 통치하에 있던 연해주에서 태어나 198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작고한 시인이다.

전동혁은 소련작가동맹의 일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레닌기치』 신문사에서 일하였다. 「박 령감」은 『레닌기치』 1967년 11월 8일자 3쪽 전면에 걸쳐 발표된 장편서사시다.

주인공 박 영감은 1922년의 볼로차예프카 전투에 직접 참가, 적군을 도와 백군과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고려혁명의용군’ 소속 고려인이었다. 그는 1937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지만 농업생산의 ‘돌격대원’으로 당의 칭찬을 받는다. 박 영감은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겠다고 탄원서를 내어 우랄산맥 쪽의 광산에 가서 일할 정도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전후에는 다시 집단농장에서

* 중앙대학교 교수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집안을 잘 일으켜 1967년에 칠순잔치를 연다. 그러므로 박 영감은 소련 당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고려인 샘플인 셈이다.

전동혁은 1937년의 강제이주가 오히려 고려인들에게는 큰 혜택을 가져다준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주를 당한 고려인 전부가 소련 공산당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주제는 강제이주가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겪은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그간의 시각을 뒤흔드는 것이다.

주제어 : 연해주, 강제이주, 고려인, 러시아 내전, 원동, 디아스포라, 레닌 기치

1. 서론

시인 전동혁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하에 들어갔던 1910년, 러시아 통치하에 있던 연해주¹⁾에서 태어났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소왕령) 시에 있는 소왕령조선사범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시「봄」을 신문 『선봉』²⁾에 발표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1937년 스탈린의 지시로 행해진 연해주 거주 조선인들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강제이주³⁾ 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타슈켄트사범대학 언

1) 시베리아 동해 연안인 연해주에는 1930년대에 이르러 러시아 이주 조선인이 20만 명 가까이 살았다. 1937년에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한 고려인들은 떠나온 고향 연해주를 ‘원동(遠東)’이라고 불렀다.

2) 『선봉』은 연해주로 건너간 애국지사들이 삼일만세운동 4주년을 기념하여 1923년 3월 1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창간한 신문이다. 1937년 연해주 고려인들이 몽땅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면서 탄압을 받아 폐간되었다. 다행히 신문사의 일부 직원이 강제이주 와중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들이 이주 당시 가져온 활자와 신문 기자재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1938년 모국어 신문 『레닌 기치』를 발간할 수 있었다(김병학,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 인터북스, 2009, 12쪽 참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박 령감」은 『레닌기치』 1967년 11월 8일자 3면 전면에 걸쳐 발표된 장편서사시다.

전 동 행

- 전동혁의 장편서사시 「박 령감」 연구 443

이 작품에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 연해주 거주 조선인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이후의 삶이 잘 그려져 있어 주목을 요한다. 또한 러시아가 1917년 공산혁명 성공 이후 적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내전을 전개했을 때 조선인 의용군 부대가 적군을 도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탄생에 일조한 내용이 나오므로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작품이다. 연구자는 이 작품이 이룩한 것과 아쉬운 점, 즉 공과 과를 논하고자 한다.

정상진의 회고록에 따르면 전동혁은 북조선에 가서 많은 가사를 창작했고, 이것들이 노래로 만들어져 인민들에게 불리어졌다고 한다.⁵⁾ 1962년에 중앙아시아 고려극장에서 공연한 희곡 「모란봉」은 북한에서도 무대에 올려졌다. 김필영은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에서 전동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게 기술하고 있다.

전동혁(1910-1985)의 시로 「력서」(1960), 「오월의 절규」(1960), 소련 주권을 지키기 위해 기여한 박 영감의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사시 「박 령감」(1967), 소련 청년들의 국제주의자적 정신을 기리는 「새 전설」(1968)이 있다.⁶⁾

이외의 평가로는 “중앙아시아에서 레닌 당이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고려인의 삶을 ‘박 영감’이라는 인물이 체험한 역사적 사실을 회상 구조로 지은 장편서사시 「박 령감」”⁷⁾과 “소련 개방 이전까지 고려인들이 기억하는 ‘강제이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⁸⁾이라는 언급이 있다. 강진구의 논의는 오류다. 작품에는 강제이주에 대한 내용이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그 대신 소련에 대한 예찬이 시종일관 전개되는

5) 정상진, 위의 책, 195쪽.

6)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300쪽.

7)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5, 78쪽.

8) 강진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양상 연구」,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60쪽.

데, 그 이유가 소련 당국의 검열을 의식해서인지 자발적인 충성심에 기인한 것인지 논의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에 주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작품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다루어온 국내 학계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이다. 타의에 의한 이주였기에 ‘강제이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만 고려인 전부가 여기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본고는 밝혀내고자 한다. 오히려 전동혁은 체제순응을 넘어 체제옹호적인 관점에서 이 작품을 썼던 것인데, 이 점은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상의 책자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출간된 그 어떤 북한문학사⁹⁾에도 전동혁이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다. 이를 미루어보면 전동혁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북한 등 드넓은 지역에서 다년간 창작활동을 했던 시인임에도 국내 학계에는 거의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고려인 의용군의 러시아 내전 참전 묘사

전체 5개 장으로 되어 있는 「박 영감」은 액자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박 영감’이라는 이의 칠순잔치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시적 화자가 관찰자가 되어 박 영감의 현재의 삶을 살펴보기도 하고 과거지사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박 영감의 과거지사가 펼쳐지는 부분에서는 겹따옴표를 사용하여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는다. 즉, 이때 관찰자는 사라진다. 일가친척과 많은 동네사람이 잔칫집에 와서 축하해주는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박 영감은 좌중을 향해 “내 심장이 읊는 시를/ 내 심장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게, 들어들 봐!” 하고 외친 뒤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박 영감이 좌중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1922년 2월 10일부

9)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국학자료원, 1995.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신형기·오성호, 『북한 문학사』, 평민사, 2000. 김용직, 『북한문학사』, 일지사, 2008.

터 사흘에 걸쳐 진행된 ‘볼로차예프카 전투’에 관한 것이다.¹⁰⁾

무산계급혁명을 성공시켜 공산당 정부를 세운 러시아 공산혁명군(적군)은 1918년 6월부터 제정을 옹위하는 차르 신봉자들과 멘세비키¹¹⁾로 이루어진 백군과 치열한 내전을 벌인다. 내전에서 패한 백군의 잔류 병력이 하바롭스크 쪽으로 쫓겨오자 러시아의 어지러운 정국을 틈타 1918년 4월부터 연해주를 강점하고 있던 일본군이 이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백군을 받아들여 연합세력을 구축, 적군을 위협하게 된다.¹²⁾

1922년 2월 10일부터 적군은 볼로차예프카(전동혁의 시에는 ‘엘로차엠펜카로 표기)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여 백군과 일본군을 하바롭스크 일대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이 전투는 적군이 백군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바롭스크의 칼 마르크스 거리에는 승전을 기념하는 거대한 전적비가 세워져 있고, 조형물 옆의 비문에는 “118명의 빨치산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전투에는 ‘고려혁명의용군’ 소속 고려인¹³⁾이 다수 참전하여 12명의 전사자가 나온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투의 총 희생자 118명(일본인을 제외한) 중에는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하

10) 당시 지휘관 V. A. 포포프는 한인중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2월 10일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 부대들은 공격을 위해 이동했다. 6연대의 한인중대가 가장 먼저 철조망 장애물지대에 도착했고 바로 맹렬하게 돌격을 감행했다. 대부분의 戰士들은 철조망절단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철조망을 총검 또는 개머리판,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로 끊어야 했다. 敵軍들은 장갑기관총으로 폭풍과 같은 화염을 토해내었다. 거의 전 중대가 철조망에 매달린 채 전사했다. 포포프, 『볼로차예프카로 가는 접근로에서』, 『타이가 원정』, 모스크바, 1936, 270쪽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김광환·이백용 역,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211쪽 재인용).

11) 러시아 마르크스주의 우파. 1903년 러시아사회민주당 제2차 대회에서 조직론을 둘러싸고 당이 양분되었을 때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다수파)와 대립하던 소수파를 말한다. 지도자는 L. 마르토프였다.

12)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29쪽 참조.

13) 1863년, 13개 가구가 러시아로 이주해 간 이후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연해주 일대에 사는 조선인을 러시아인들은 ‘카레이스키’라고 불렀다. ‘고려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러시아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고려인으로 불리었다.

고 참전한 고려인이 상당수 있었으며, 희생자 중 12명은 러시아인이 아니라 고려인이었다는 점이다. 이 전투의 공로로 고려혁명용군 제6연대는 적기훈장을 단체로 받았다. 이 전투의 승리로 백군 세력은 완전히 궤멸되었고, 1922년 12월 30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은 이 명칭을 줄인 것이다)이 탄생하였다.

연해주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이 러시아 공산혁명군과 연대하여 하바롭스크의 백군과 일본군을 몰아내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참전했던 고려인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전동혁은 이를 토대로 하여 장편서사시로 써보기로 한다.

“...1922년 2월 10일.
출전 명령은 내렸네, —
월로차옌까 역을 점령하라
최고 사령관 부루헤르의
전투 명령은 내렸네.
눈은 깊어 허릿등 치고
날씨는 고되게 맵짜서
숨 콕콕 막히는 새벽
우리 중대는 나섰네,
적진을 향하여
산병선 치면서.
내다보는 이운까란 산,
여섯 줄로 철조망 두른
그 산 뒤엔 월로차옌까 역.
그 산비탈엔 참호가 겹겹
참호 속엔 적들의 기관총...
그리고 대포, 땅크까지...
철길에선 장갑차 왔다갔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

혁명의 시킴이니
승리의 한 맘에 불타는
혁명군 전사들은
눈 속을 뚫고 헤치며
앞으로 앞으로 나갔네.

박 영감은 전투에 참가했던 젊은 날의 무용담을 이와 같이 펼쳐놓는다. 당시 적군의 최고 사령관은 콘스탄치노비치 부루헤르였는데 하바롭스크의 전적비에는 그의 두상이 세워져 있다.

이 시에서 부루헤르 사령관의 명령을 “혁명의 시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사령관을 혁명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 러시아인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고려인 병사들이 타국에서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를, 전동혁은 신바람이 나서, 대단히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서사시의 편수가 많지 않은 우리 시에서 다수의 고려인이 연해주에서 적군과 연합하여 일본-백군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하는 전투 장면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한 「박영감」에 대해서는 시사적인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제1장은 시 전체의 1/3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을 이러한 전투 장면 묘사에 할애하고 있다.

산 밑에 다가갔을 때
적들은 불을 뿜었네-
기관총, 보총 소리 쿵 댕댕
가끔 가끔 대포소리 쿠○ 쿠○
여기저기 포탄 터지는 곳에
흰 눈이 공중에 날리고
전사가 총탄에 맞은 곳에
흰 눈이 붉은 피로 물들었네.

흘날리는 눈발 속에서 육탄 공격으로 철조망을 끊고 참호를 빼앗는

과정이 이어진다. “쇠뿔이로 화한/ 혁명군 전사들의 몸뚱이는/ 그야말로 육탄이 되어/ 철조망 한 겹 두 겹 무찌르며/ 산꼭대기 향해 올라” 마침내 이윤까란 산을 점령한다. 사흘 밤낮으로 철조망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를 적지 않게 내지만 전우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다. 방어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윤까란 산을 점령하고 산 너머에 있는 볼로차예프카 역을 점령함으로 전투가 끝난다. 전투의 마지막 장면이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월로차옴까 역을 향하여
 사태같이 밀려 내려갔네,
 적들은 주검과 무기를 버리고
 혼비백산 도망쳤네,
 이때 혁명군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에 뻗쳤고
 ‘우라’ 소리 천지를 진동했네,
 어느새 산꼭대기와
 역사의 지붕 우에선
 붉은 깃발이 휘날렸네….

혁명군 전사들이 ‘만세’라고 외치지 않고 ‘우라’라고 외친 것, 그리고 태극기가 아니라 ‘붉은 깃발’을 휘날렸다는 것이 특이하다. 전시에 러시아인과 고려인의 구분이 없었다. 하지만 1922년의 볼로차예프카 전투는 고려인 의용군이 주체가 되어 행한 전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러시아 공산혁명군을 도와 참전했던 것이며 공산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일조했던 전투임이 시에 확실히 드러나 있다. 제1부는 이렇게 끝난다.

그때 박 령감 또래들이-
 이십 안팎의 청년들이
 지금은 김 령감, 리 령감,

최 령감으로 불리우는 이들이-
 이만 전투, 우리가 전투,
 또 다른 곳 전투에서
 쏘베트 주권 위해
 로씨야 형제들 도와
 백위군, 왜병들 까부신
 빨치산이 그 얼마드냐?
 전사한 이들겐 목상 올리고
 살아 계신 이들겐 머리 숙인다.

시를 보면 고려인 의용군은 볼로차예프카 전투 외에도 이만 전투, 우리가 전투 등등에 참가하여 “쏘베트 주권 위해/ 로씨야 형제들 도와/ 백위군, 왜병들”을 ‘까부셨음’을 알 수 있다. 박 영감의 입을 빌려 전동혁은 몇몇 전투에서 다수의 고려인 빨치산이 죽었다고 증언한다. 박 영감은 청중에게 “전사한 이들겐 목상 올리고/ 살아 계신 이들겐 머리 숙인다”고 고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제1부는 박 영감이 참전한 볼로차예프카 전투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증언의 문학이다. 이 부분은 ‘장편서사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역동적이고 웅장하다.

3. ‘강제이주’가 금기어가 된 이유

시는 제2부로 가서 일단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출발한다. 기쁜 잔칫날, 박 영감은 연해주에서의 평화로웠던 날들에 대해 회상에 잠긴다. 원동 땅은 “내 몸과 피로 지킨 땅”이며 “내 청장년 시절 흘러간 곳”이고 “내 힘과 땀이 스며든 땅”이며 “내 손으로 매만지던 땅”이다. 이런 곳을 그대로 두고 지역 주민 전부가 몽땅 타의에 의해 제2의 고향 연해주를 떠나 낯선 땅, 그것도 허허벌판으로 떠나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극이다.

이 사람, 친구들,
 이 사람, 젊은이들,
 이 기쁜 날 당하고 보니
 옛 친구, 옛 전우들 그림구려,
 내 살던 땅, 원동 땅이 생각히네—
 내 몸과 피로 지킨 땅,
 내 청장년 시절 흘러간 곳,
 내 힘과 땀이 스며든 땅,
 내 손으로 매만지던 땅,
 지금도 꿈이면 가보는 곳들;

오죽 그리웠으면 “지금도 꿈이면 가보는 곳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박 영감은 떠나온 원동의 곳곳, “록등, 지신허-연추땅,/ 허커우, 항거우-추풍별,/ 치머우, 시토우-외수청,/ 신영동, 청지동-내수청,/ 리포, 사만리, 안반, 다반-/ 내 다니던 곳, 살던 곳이라네,/ 해삼, 소왕령, 허발포, 이만-/ 내 가끔 드나들던 도시라네.”라고 지명을 나열하면서 연해주 곳곳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않는다. 강제이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목이 「박 영감」이 지니고 있는 비판의식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원동에 대한 기억을 가진 고려인이라면 살기 좋았던 그곳에 대한 향수에 잠기면서 실향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독자에게 있어 지명의 나열은 그곳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으므로 별다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다. 고향인 원동을 타의에 의해 떠나게 되었으며, 다시는 고향에 갈 수 없다는 상실감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강제이주 1세대에게는 정말 절실했을 것이다.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되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지명을 나열한 것은 현명한 방법이었다. 아무튼 1937년 이전까지 연해주 고려인들은 소련 국민으로서 공산주의 체제에 잘 적응해 연해주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전심전력했다.

꼼무나, 꼴호스,
 토호 청산, 곡물 수매,
 벼 농사, 콩 농사,
 고기잡이, 목재 준비,
 오년 계획, 돌격대원,
 ‘선봉’ 신문, 문맹 퇴치,
 공산당원, 공청회원,
 려자 대표, 소년 탐험대—
 별로 길게 말해 뭣인가?
 이것이 바로 내 걸어온
 평화 건설 열다섯 해
 보람찬 역사라네.”

제2장의 마지막 연이다. 제2장에서는 박 영감이 화자로 등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인들은 1922년에 큰 전공을 세우고 나서 15년 만인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인데, 그 사이를 “평화 건설 열다섯 해”라고 하였다. ‘평화 건설’과 강제이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던 고려인들을 열차에 태워 중앙아시아로 추방한 소련 당국을 비판할 수 없던 전동혁은 체제순응의 타협점을 찾아서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다행’이라는 식으로 현실을 합리화한다.

‘꼼무나’는 ‘공동 집단’을 뜻하는 북한말이다. ‘꼴호스’는 모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고, 협동조합 형식에 의해 농민이 집단 경영을 하며, 수익은 각자의 노동에 따라 분배하던 소련의 집단 농장을 뜻한다. 박 영감은 이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라는 공산주의식 생산 방식에도 익숙해져 그런 체제하에서 곡물을 수매하고 벼와 콩을 수확하고 고기도 잡고 목재도 마련한다. 고려인들은 이 15년 동안 돌격대원으로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공을 세우고 『선봉』 신문을 발간하여 문맹 퇴치에도 앞장선다. 성인은 공산당원이 되고 청년은 공청(공산당 청년위원회)의 준말) 회원이 된

다. 여자 중에서도 대표가 나오고 소년은 탐험대에 들어간다. 아무튼 박영감은 ‘평화 건설’에 힘쓴 1922-1937년까지 15년 동안의 고려인의 삶에 대해 “보람찬 역사”였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런데 작품의 어디에서도 왜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잘살고 있던 이들이 느닷없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소련 당국의 검열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문에 실리는 작품인데 지난날의 강제이주나 체제에 대한 비판의 말이 들어갔다면 이 작품은 게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 큰 이유는 소련 당국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자기검열 때문이었다. 소련치하에서 남한과 북한, 중국의 조선족 등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던 고려인은 스스로 삶의 터전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돼 버렸다. 이 작품을 쓸 무렵 전동혁은 소련 국적을 가진 이로서 소련을 찬양하는 시를 써야만 했던 것이다. 그런 입장이나 처지가 강제이주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게 했을 것이다.

1922년에 고려인이 피를 흘리며 소련 건국에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뒤, 스탈린이 연해주 일대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몰아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강제이주의 이유는 첫째, 일본이 소련 극동지역 침략 전략으로 고려인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둘째, 소련은 소련·일본 간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당수의 고려인이 일본군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셋째, 이미 고려인 일본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¹⁴⁾ 강제이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다. 최강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강제이주의 원인은 고려인의 간첩행위라기보다 1930년대 일소 관계의 악화에서 기인한 것이다. 일제의 간첩이라는 죄목은 강제이주에 따른 고려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였던 셈이

14) 김중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개관」, 김중회 편,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23쪽 참조.

다.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은 집단농장에 귀속되어 일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한다. 이러한 생존의 위협 속에 계급을 내세운 소비에트 정권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친다.¹⁵⁾

이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에 협조할 고려인의 싹을 잘라두자는 의미가 컸을 것이다. 아무튼 연해주에서 살아가고 있던 많은 고려인들은 러시아가 적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내전을 벌이고 있던 시기에 적군을 위해 수많은 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¹⁶⁾ 적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여 소비에트정권을 확립했으므로 소련은 사실 고려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소련의 스탈린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연해주의 고려인이 일본을 도와 반역 모의에 가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여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해주에서 수만 리 떨어져 있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고려인 주민 전부를 이동시킨다. 스탈린이 하필 불모지에 가까운 중앙아시아 지역을 택한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그간에 드러난 조선인들의 부지런함을 고려할 때 이주의 최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¹⁷⁾

소련 당국이 강제이주 전에 한 일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된 2,800여 명의 선진 인텔리들, 학자들, 군 장교들을 체포하여 재판도 없이 총살한 일이었다.¹⁸⁾ 이 와중에 죽은 이가 조목회였다. 1937년 중에 연해주 606개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던 3만 6,422가구의 17만 1,781

15) 최강민,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에 나타난 조국과 고향 이미지」,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214쪽.

16) 볼로차예프카 인근에 있는 인 역의 전투에서는 조선인 75명(일설에는 100여명)이 전사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한다(박환, 『박환의 항일유적과 함께하는 러시아 기행 2』, 국학자료원, 56쪽).

17)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2쪽.

18) 정상진, 「내가 직접 겪은 강제이주」, 중앙아시아문인협회, 『고려문화』 통권 2호, 2007, 197쪽.

명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다.¹⁹⁾ 이들은 가재도구는 물론 곡식 종자나 가축 등을 다 그냥 두고 거의 맨몸으로 열차를 타야 했다. 40일 동안 기차여행을 했는데(이송은 여러 차례 나누어 행해졌다), 기차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상진의 회고답에 따르면 이주 초년 기간에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토질병과 추위로 특히 많이 죽었는데 그 수가 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²⁰⁾ 민족의 대이동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작품의 무대가 한 순간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바뀌는 것은, 소련 체제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긴 했겠지만 작품의 개연성이나 리얼리티 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임에 틀림없다.

4. 소련의 중앙아시아 개발이 시작됨

전체 작품의 2/3 분량을 차지하는 제2-5부의 내용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후 허허벌판을 개척하여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드는 건설과 개발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나라의 보살핌 속에서 “이곳 형제들의 도움 받아/ 새 땅 일구어/ 새 살림”을 꾸려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부터 서른 해 전,
시월의 혜택 받아
참된 인간 행복 맞본
박 령감, 김 령감들이,
당의 부름과 시킴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19)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 집문당, 2005, 199쪽.

20) 정상진, 앞의 책, 197쪽.

리 령감, 최 령감들이
정든 고향- 원동 떠나
낮선 곳에 옮겨 와서
나라의 보살핌 속에
이곳 형제들의 도움 받아
새 땅 일구어
새 살림 꾸렸어라.

시를 쓴 시점, 그리고 박 영감이 칠순잔치를 행하는 시점인 1967년부터 서른 해 전이란 1937년, 바로 강제이주가 있던 해이다. “시월의 혜택”의 ‘시월’을 10월혁명(1917)으로 보면 20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강제이주를 당한 1937년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동혁은 여기서 1937년의 강제이주를 “시월의 혜택”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우리는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를 우리 민족의 큰 비극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고려인으로 불리게 된 자신들도 과연 이것을 비극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동혁은 어디에서도 ‘강제이주’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이후 이들은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집단 농장에서 “새 땅을 일구어/ 새 살림을 꾸려”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된다. 이어지는 내용은 박 영감의 과거지사 회고담이다.

“...갈밭, 진펄, 모기, 학질...
이것으로 이곳 자연은
우리 이주민 맞았다네.
그러나 락심치 않고
우리 팔 걷고 나서
토막 치고 온돌 놓아
잠자리 마련하고
낮 버려 갈 베고

트랙토르로 땅 번지고
깃드맨으로 두렁 잡고
대돌, 소돌 내리워
물 끌어다 논 풀고
벼씨 뿌려 매दार웠네...

수십 년 삶의 터전이었던 원동에서 이곳으로 온 이후의 삶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몇 행에 걸쳐 묘사되고 있다. 낫설고 물선 중앙아시아는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갈밭과 진펄로 되어 있었고, 모기에 물려 학질을 앓는 환자도 속출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 영감은 소련 당국에 대해 원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전동혁은 박 영감이 집을 마련하고 논밭을 일구는 과정을 묘사할 뿐이다. (‘트랙토르’는 ‘트랙터’의, ‘깃드맨’은 팽이나 가래의 러시아식 표기다.) 박 영감은 다음과 같이 회고담을 이어간다.

이렇게 삼 년 농사지으며
벽돌집도 짓고
기와지붕도 이었네.
학교도 짓고 구락부도 꾸리고
병원도 열고 유치원도 차렸네.
채소 심어 김치도 담그고
콩 심어 장도 만들었네...
우린 시월의 나라에서 살기에
우리 뒤엔 레닌 당이 있기에
우린 먼 조선 화전민도 아니었고
옛 원동 도강민도 아니었네.
우리 살림 날로 피져갔고
우리 생활 날로 행복해갔네”.

처음 한 3년 동안에는 내 집 마련과 내 논밭 일구기에 급급했지만 몇 년 뒤에는 학교, 구락부(마을회관 같은 곳), 병원, 유치원 등을 지어 조금

씩 마을의 모습을 갖추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혁은 박 영감의 입을 빌려 소련을 “시월의 나라”로 지칭하는 한편 “우리 뒤엔 레닌 당”이 있다고 믿음직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자신의 조상은 조선에서 화전민이었고 조국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 원동 땅에 정착한 불행한 이민자였다면서 신세한탄조의 발언을 하고 있다. 어렵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과 달리 이주 이후 우리네 살림은 날로 피어났고, 생활은 날로 행복해갔다면 나야진 살림살이에 대해 소련 당국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최강민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주한 고려인들의 생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제 수탈에 의해 고통받는 조선 농민의 형편보다 나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실정기에 그들은 궁핍한 조선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보다 이주한 러시아 땅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면서 상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이것은 고려인들이 새로운 고향이자 조국으로서의 러시아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²¹⁾

최강민의 이런 지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자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하면 ‘강제이주’와 ‘디아스포라’를 연결시켜 불행한 처지에 놓인 고려인들과 그들의 후손이 쓴 아픔과 설움의 문학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였다. 그런데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살아간 이들 대다수는 소련 체제에 잘 적응하고 동조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마련했던 것이다.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공산주의 국가 소련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삶과 꿈을 형상화한 작품인 「박 영감」이기에 한편으로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해서 썼을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이주를 ‘불행’으로만 간주해온 시각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이후 화자가 등장하여 박 영감이 “폴호스의 영예 게시판에선/ 사진 떨

21) 최강민, 앞의 글, 213-214쪽.

어질 줄 몰랐고/ 명절 때, 결산 때/ 상급 받기 레사였다.”고 하면서 칭송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소련 당국의 인정을 받으며 ‘오בות하게’ 살림을 꾸려가던 박 영감의 일상에 “고요한 늪 가운데/ 커다란 돌맹이 떨어지듯/ 큰 파도가 일어났다”고 한다. 아래는 제3장의 마지막 문장이다.

온 나라 만백성이
원췌 경멸의 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당과 정부의 호소 받들고.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살아가던 고려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 그 일이란 “원췌 경멸의 성전”과 연결이 된다. 이것만으로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데, “당과 정부의 호소 받들고”라는 표현을 보아 단순한 일이 아님이 확실하다.

5.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고려인의 입장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독일과 치열한 전쟁을 했고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 8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전동혁은 세계대전 당시 고려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시는 제4장으로 연결된다.

“...우리 땅을 짓밟다니
우리 행복 빼앗다니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안 된다, 안 돼, 이놈들아,
이 고약한 파시스트들아!
내 나이는 많지만

아직 총은 들 수 있으니
 어느 전선에 보내달라
 탄원서 올렸다네,
 그래서 로력 전선에 가게 됐네,
 가라는 대로 가야지
 로력 전선도 전선이니.
 우랄 가서 쇳돌을 캐네
 쇳돌이 있어야 강철을 뽑지
 강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지
 무기가 많아야 승리하지...
 내 맏아들은 석탄을 캐다네
 석탄도 있어야 했지-
 기차도 달리고 쇳돌도 녹이려니.
 마누라도 며느리도 집에서
 베틀농사를 했다네
 군량도 물론 보태야 했지...
 이렇게 전선을 위해,
 승리를 위해
 나도 우리 집안도
 온 나라와 함께 싸웠다네.
 힘껏 몸 바쳐 싸웠다네.

제4장의 도입부다. ‘우리 땅’을 짓밟은 이들은 독일군이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0년 6월 22일,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확전이 된다.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행복을 빼앗은 “이 고약한 파시스트들”은 독일군을 가리키는 것이다. 볼로차예프카 전투 경험이 있는 박 영감은 전선으로 보내달라고 당국에 탄원서를 올린다. 하지만 1922년에 박 영감의 나이가 스물두 살이었다고 가정한다면 1940년이면 마흔이다. 지휘관이라면 또 모르지만 현역사병으로 참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다. 하지만 탄원서 덕분에 ‘로력 전선’에 나가는

데, 그것은 우랄산맥 쪽에 가서 철광석을 캐는 일이었다. 임금노동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전시의 자원봉사 차원이었다. 박 영감의 맏아들은 석탄 캐는 일을 하고, 영감의 아내와 며느리는 벼농사를 하여 수확한 것을 전선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집안 식구 모두 러시아인들과 함께 후방에서 싸웠다는 무용담이 이어진다.

독소전쟁은 1945년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이 난다.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온 박 영감은 농사일에 전념하는데, 이제는 농기계도 부리고 화학비료도 쓸 줄 알게 된다. 기계화된 선진 영농법을 배워 더욱더 많은 수확을 냄으로써 소련 당국의 신망을 얻는 내용이 전개된다.

박 영감 이곳 온 지 서른 해,
전선서 온 지 스물두 해,
년금에 나간 지 다섯 해.
그새 변한 거 많고 많아-

이 대목을 보면 박 영감이 칠순잔치를 연 해를 짚어볼 수 있다. 강제이주로 중앙아시아로 온 지가 30년이 되었다고 하므로 확실히 1967년이다. 그러므로 박 영감은 1897년생이고 1922년 볼로차예프카 전투 때 그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전선서 온 지 스물 두 해”라는 것은 독소전쟁이 끝난 1945년으로부터 22년이 지났다는 것이므로 박 영감이 칠순잔치를 연 것은 1967년이 맞다. “년금에 나간 지 다섯 해”라는 것은 은퇴하여 연금 수혜자가 된 지가 이제 5년이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모든 시점이 다 맞아떨어진다. 시는 중반부에 이르러 공산당국의 배려에 대해 열렬히 찬양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박 영감은 “레닌 당의 시책은/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다고 하고, 시월혁명은 우리에게 ‘문명’과 ‘풍족’을 가져다주었으니 “우린 그 사랑 속에서/ 너나없이 행복”을 누린다고 말한다.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이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레닌 당과 시월혁명 덕분이라고 공을 돌리고 있다.

전동혁은 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작품성 제고에 나서지 않고 소련 공산당에 대한 충성 맹세로 나아가는데, 이는 소련 체제하에 써 『레닌기치』에 발표한 작품이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1부 전투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가 가져다주었던 긴장감을 잃고 이런 식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긴장감은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씌어지는 체제순응적인 작품에서 갈등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이 시에서는 백군-일본 및 독일군이라는 갈등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곧바로 공산당국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지므로 작품은 지리멸렬해지고 만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기계화 영농이 가져다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예찬이 극에 다다른다.

벼가을도 기계로,
 목화걷이도 기계로,
 거름은 비행기로,
 김은 농약으로...
 품은 적게 들고
 소출 많이 나니
 소득은 불어가고
 살림은 늘어가네.
 우리 마을 대치 같고
 문화 궁전 왕궁 같고
 ‘행복 회관’, ‘경기장’-
 이런 말 언제 들어봤나?
 끼마다 차리는 우리 집 밥상
 옛날 임금 밥상 못지않네.
 소고기국에 이밥이
 새날 지정...

1960년대에 들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이 타고난 부지런함으로 집집이 부를 이루어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고려인 자신의 성실함 덕분이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고 공산당에 공을 돌린다. 당의 경제적 지원이 없지는 않았지만 소련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70% 수준이었다.²²⁾ 하지만 박 영감은 모든 문명개화와 경제발전이 당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예찬한다. 등불 대신 전등불을, 장작불 대신 가스를, 우물 대신 수도를 쓰게 된 것에 대해서도, 라디오·랭동기(냉장고)·세탁기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감격해한다. 그리고 천민 출신인 자신이 이곳에 와서 신분의 급상승을 이룬 것도 ‘시월’과 ‘레닌 당’의 ‘혜택’이라고 공을 돌린다.

스물 남은 내 손주 가운데
 사회주의 로력 영웅,
 학사, 박사도 있고
 기사, 의사도 있네
 낫 놓고 기역자 모르던
 우리 집안 오늘 와선
 유식쟁이 집안 됐네.
 미투리 한 켄레 변변치 않던
 우리 집안 오늘 와선
 입을 것, 먹을 것,
 그리운 것 없는 부자집안 됐네.
 이건 모두다
 시월의 혜택이네,
 레닌 당의 혜택이네.

22) 1950-60년대를 통해서 소련의 총 투자액에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비중은 5개년 경제계획기마다 확대를 계속했다. 다만 카자흐스탄과 그 외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격차는 크고, 그것은 주민 한 사람당 투자액에도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남부지역 4개 공화국의 투자액은 소련 전체 평균을 밑돌았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소련 평균의 70%대에 머물렀다(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이해』, 씨네스트, 2010, 80-81쪽).

스무 명 넘게 둔 손자 가운데 사회주의 노력 영웅, 학사, 박사, 기사, 의사 등이 나온 것이 박 영감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다. “미투리 한 켄레 변변치 않던” 극빈자 집안이었는데 이곳에 와서 ‘유식쟁이 집안’에 다 ‘부자집안’이 되었다고 박 영감은 손님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한편으로는 “이건 모두다/ 시월의 혜택이네,/ 레닌 당의 혜택이네.” 하면서 고마움을 표한다. 그런 연후에 축배를 들자, 주안상 물리고 춤을 추자고 권하면서 잔칫집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전동혁은 마지막 연에 가서 다시 화자를 등장시켜 이렇게 말하게 한다.

문노니, 이 나라에
 박 령감이 몇몇이더냐?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 돌 맞는 우리나라는
 박 령감들로, 그 후손들로,
 묶여진 커다란 한 가정.
 여러 인민의 박 령감들로 하여
 우리나라는 부강하나라,
 또 그들로 하여
 우리 사회는 아름답니라.
 존귀하신 박 령감,
 만수무강하시라!
 영광을 지니시라!

“신 돌 맞는 우리나라”라고 한다. 1917년 공산혁명을 하여 새롭게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박 영감 자신의 조국이나 모국이 북한도 남한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서운해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시 속에서 화자건 박 영감이건 간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조선인 혹은 고려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는 것이 못내 아쉽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지만 이 시에서 계급

의식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민족의식은 느낄 수 없다. 또한 하부구조만 충족되면 행복하다는 사회주의적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시에는 생활만 풍족해지면 사고의 자유, 인식의 자유, 행동의 자유는 아무리 억압을 받아도 괜찮다는 주장이 암암리에 숨어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박 령감」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없게 한다. ‘구소련권 고려인문학’을 부제로 삼은 이명재 외 공저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나 김종희가 엮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정사선·우정권 공저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등은 책 제목부터 그렇듯이 고려인 문학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을 모은 책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강제이주를 당한 억울한 희생자인 고려인과 그들의 후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소련 당국의 검열을 의식해서 당을 예찬하는 내용이 펼쳤을지라도 그것이 다수 고려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전동혁은 1940년대 중반에 북한에 들어가 공산당 공화국의 건설에 일조하고 6·25전쟁 때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 외무성에서 일하지만 1957년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귀환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동혁의 국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즈베키스탄으로 되돌아간다(소련 방 해체 이전 이곳은 소련 땅이었다). 그 10년 뒤에 자신의 인생이 많이 투영된 ‘박 령감’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사시를 쓴 것이다. 이 작품이 소련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방도가 없다.

6. 마무리

지금까지 1967년 11월 8일자 『레닌기치』 3면 전면에 실린 전동혁의 장편서사시 「박 령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시적 화자가 박 영감이 이런 사람이라고 독자에게 소개를 하고, 박 영감은 자신의 칠순잔치 자리를

찾아준 손님들과 집안 식구들한테 과거지사를 털어놓는 식으로 전개되는 이중구조를 지닌 시이다.

박 영감은 1922년의 볼로차예프카 전투에 직접 참가, 적군을 도와 백군과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 공을 세운 ‘고려혁명의용군’ 소속 조선인이었다. 이전에도 연해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지만 이후 15년 동안 소련과 더욱 돈독한 협력체제 속에서 농업생산량을 높이며 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인 1937년 고려인들이 몽땅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이주를 당하지만 이들은 불굴의 의지로 땅을 일군다.

이주 후에 박 영감은 농업 생산의 ‘돌격대원’으로 소련 공산당의 칭찬을 받는다. 박 영감은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겠다고 탄원서를 내어 우랄산맥 쪽의 광산에 가서 일할 정도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전후에는 다시 집단농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집안을 잘 일으켜 부자가 되고, 1967년에 칠순잔치를 연다. 그러므로 박 영감은 소련 당국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고려인 모델인 셈이다.

박 영감은 1937년의 강제이주가 고려인들에게는 큰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믿는다. 박 영감이기도 한 작가 전동혁은 그래서 이주를 당한 고려인 전부가 소련 공산당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마음을 이 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주제는 강제이주가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이 겪은 참혹한 사건이었다는 그간의 시각을 뒤흔드는 것이다. 강제이주 이전에도 연해주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주 이후에 소련의 도움을 더욱 많이 받아 잘살게 되었으니 고마워할 일이라고 박 영감은 말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전동혁은 교묘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떠나온 고향 연해주 일대의 지명을 일일이 나열하고는 이곳을 “지금도 꿈이면 가보는 곳들”이라고 하였다. ‘강제이주’나 ‘이주해 왔다’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이향(離鄉)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다. 아무튼 이 작품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말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창작된 작품들을 좀 더 찾아보고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자료

전동혁, 「박 령감」, 『레닌기치』, 1967. 11. 8.

단행본

- 김병학,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 인터북스, 2009.
- 김병학 편,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II』, 화남, 2007.
- 김용직, 『북한문학사』, 일지사, 2008.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국학자료원, 1995.
- 김종희,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민음사, 2007.
-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 박창규, 『중앙아시아의 이해』, 써네스트, 2010.
- 박환, 『박환의 항일유적과 함께하는 러시아 기행 2』, 국학자료원, 2001.
- 보리스 박·니콜라이 부가이, 김광환·이백용 역,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2004.
- 신형기·오성호, 『북한 문학사』, 평민사, 2000.
- 윤병석, 『해외동포의 원류』, 집문당, 2005.
- 이명재 외,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2004.
- 이송호 외, 『연해주와 고려인』, 백산서당, 2004.
- 장사선·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도서출판 월인, 2005.
-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 지식산업사, 2005.
- 전경수 편, 『까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최동호 편,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1995.

논문 및 평론

김종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 개관」, 김종희 엮음, 『중앙아시아 고려

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정상진, 「내가 직접 겪은 강제이주」, 중앙아시아문인협회, 『고려문화』 통권 2호, 2007.

〈ABSTRACT〉

A Study of Dong-Hyeok Jeon's Epic
The Old Man Park

Seung-Ha Lee
(Chung-Ang University)

When Dong-Hyeok Jeon was born in 1910, the Korean Empire was about to go under the occupation by Japan's force. He, a poet, was born in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ruled by Russia. and deceased in 1985 in Uzbekistan.

Dong-Hyeok Jeon was working for a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Lenin Standard* for many years, and he was a member of the Writers Association of Russia. *The Old Man Park* is an iliad which was published in whole space of the third pages of *Lenin Standard* on November 8th 1967.

The main character, the *The Old Man Park*, was participated in Vladivostok War in 1922. One old Korean man from Koryo, distinguished himself in Russian Civil War as a member of The Koryo Revolution Volunteer Army and fought for The Red Army against The White Army and Japan. Although he was displaced to the Central Asia by force, his work won the praise of the Party as a 'brown-shirts' in the agricultural product line. When Germany and Russia rushed war, the *The Old Man Park*, gave his fealty to the Communist Party by submitting a written petition asking for volunteer work in a mine by The Ural Mountains. After the war, he was one of the hard-working workers at the collective farm and that made his family well-off and had a happy 70th birthday party, which made the Russian government believe that he was a good model of desirable-Koryo people.

Dong-Hyeok Jeon expressed through the iliad that the deportation happened in 1937 turned out to be the better one to all Koryo people so they all should be thankful to Russia Communist Party. What this means is that the theme of this iliad about the deportation of Koryo people in the Maritime Province of Siberia is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what we have known.

Key words : Maritime Province in Russia(Yunhaeju), deportation, Koryo people, Russian civil war, the Far East, diaspora, *Lenin Standard*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8.5. / 게재확정일 : 8.15.
